

태국 참전용사 감사 방문 이야기

“THANK-YOU-FROM-KOREA”

작년 10월18일부터 25일간 1주 태국을 다녀왔다.

9지역대표 남궁 군
(서울새한빛RC)



한국과 태국간의 우정(6.25참전)

1950년 태국은 한국전쟁에 미국다음 두번째로 육해공군 연6000명을 파병. 함정2척, 수송선1척, 공군수송기 1대와 국왕의 특별명령으로 쌀6000t을 원조했다. 한국이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낯선 이국의 영하의 혹한 추위에도 중공군 군단병력을 막아내고, 600여명을 살살하는 전과를 올리고, 태국군은 136명이 전사했다. 파병기간 1100명의 부상자도 났다. 이 같은 태국군의 용맹과 고귀한 희생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잊어서는 안된다.



방콕 공군회관 장학금 전달식과 세족식

우리 정부는 보훈처와 주태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방콕 공군회관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 우리 교민대표 등 1천여명이 모인가운데 현지 우리 기업들의 많은 지원으로 장학금을 받은 태국학생들의 수가 250여명이었다. 이날 품앗이 운동본부 초중고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청소년들이 곁에 한복을 차려입고 짧은 기간에 익힌 태국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에 이어서, 폭염속 무좀과 혹독한 겨울철 추위의 동상을 딛고 사전을 넘나들며 고생하신 참전역전 노병의 아원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에서는 노병들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스피커에서 아리랑이 흘러나오자 노병들은 모두들 합창속에서 열싸안고 눈물이 흐르는데...

태국군 한국6.25 전쟁 출전 헌화

10월 21일은 한국6.25전쟁 파병 출정식 기념행사를 하였다.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날 “춘부리21연대”에 세워진 기념 헌화식에 태국국왕대리, 육군참모총장 등



군수뇌부, 무관, 외교사절, 참전용사와 가족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보훈처 차관이 정부대표로 헌화했고, 민간사절단에서는 품앗이 운동본부 어린이와 이경재 이사장이 대표로 헌화했다. 식이 끝난후 국왕대리가 이경재 이사장에게 “전후 70년이 지났는데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밖에 없습니다”라고 인사했다.

품앗이 운동본부 봉사활동

품앗이는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으로 농촌 이웃의 농사를 서로 도와주고 받는 이웃사촌간의 상부상조로 시작되어 나라와 나라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품앗이 운동은 한국전쟁때 군대와 의료품, 물자를 도와준 나라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 주는 운동이다. 한국전쟁을 모르고 자란 세대에게 역사를 알려주고 역사참여를 가르치고 실천하게 한다. 쉬운 방법으로 참전용사에게 감사편지쓰기 운동으로 매년 전국적인 공모전에 초중고 학생이 수만명 참여한 다고 한다. 입상자들은 장관상등을 받고 Thank you from Korea 해외행사에 「리틀 앰버사더」라는 명칭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을 순방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역사를 스스로 배우게 되고 현장경험을 통해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나라와 우정을 갖게 하는 글로벌리더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으로 국제로타리 이념의 봉사정신과 비슷하여 더욱 정감이 간다. 20여년 전 고. 이동원 외무부장관을 중심으로

H₂O(Human Harmony Organization)라는 외형적 가치와 겸손한 “품앗이” 본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운동본부는 이제까지 2011년 필리핀으로부터 시작, 미국 서부4개도시, 캐나다의 5개도시, 호주와 뉴질랜드,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과 벨기에, 네덜란드를 다녀왔으며, 처음 민간단체 스스로 실행했지만 최근에는 보훈처와 외무부의 계획과 발맞추어 공동 참여한다. 한복을 곱게 입은 어린이들의 감사공연은 노병들과 가족들의 심금을 울렸다.

20세 젊은 나이에 6.25전쟁 참전용사는 이제 70년이란 세월이 흘러 90세가 되었다. 세월따라 살아계신 참전용사들이 급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6.25참전용사 마을 방문

우리 일행은 종전직후 한국정부(이승만 대통령) 지원으로 형성된 한국전 참전용사마을을 방문하였다. 이곳에 뜻있는 목사님에 의해 어렵사리 운영되고 있는 “품앗이 한국어교실”을 탐방. 50여명의 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어울려 함께 보트 여행도 하였다. 이들은 구면으로 국회동심한마당, 예천공군비행단의 여름캠프에 태국 청소년을 초청하여 함께 캠프생활을 해왔으며 카톡으로 교류하며 국경을 넘어 끈끈한 정을 이어오고 있다. 그들의 꿈은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한국기업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좋아하게 된것은 드라마 “대장금”을 보고 좋아했다고 하였다. 나는 감동한 나머지 지갑속 207,000원을 톡톡 털어 품앗이 한국어교실 목사님께 살머시 전달했다. 떠날 때 태국 청소년들은 공항까지 마중나와 서로 부둥켜안고 떨어질줄 모른다! 청소년 어린 위문사절단의 각종 위로공연이 참전용사의 눈시울을 적시며 노병 참전용사들의 아리랑 합창이 우리들의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왜일까? 이제 우리가 품앗이해야 합니다! 참전용사 위문 사절단 품앗이 어린이와 함께 동행한 모든분께 고마움과 귀한 자료를 주신 이경재 이사장님,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